

세금체납 18%·병역미필 17%

광주·전남 총선 입후보자 93명 분석 … 재산 5억 이상 21명

총선 D-13

18대 총선 광주·전남 지역 입후보자 가운데 18% 이상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한 경력이 있으며 17% 정도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후보의 경우 선거 운동과정에서 도덕성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4·5·6·7·8·9면〉

또한 16%는 사국사건 등과 관련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에 있어서는 5억원 이상

이 21명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다.

총선 후보등록을 마친 26일 광주·전남 지역 입후보자의 93명의 신상정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17명으로,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입후보자도 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실적이 전무한 후보자는 1명이다.

병역의 경우 여성후보 8명을 제외한 전체 85명 가운데 14명이 질병이

나 장기 대기 등의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체 입후보자 가운데 15명이 시국사건 등과 관련 2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과기록 가운데 선거법 위반 건수는 1건이었으며, 나머지 22 건은 국가보안법, 특기법, 부정방지법 등 일반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광주에서는 40 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서구갑 조영택 후보가, 전남에서는 담양·곡성·구례의 김효석 후보가 78억원대

를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후보들 가운데서는 29명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대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자도 7명에 달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유권자는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사회지도층으로서 지켜야 할 높은 도덕성과 의무가 요구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고 지적했다.

〈총선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됐다.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여수엑스포 조직위 공식 출범

“성공 개최 닷 올렸다”

장승우 조직위원장 선출

정동구 명예위원장 추대



재단법인으로 공식출범한 조직 위원회는 이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현황 보고회, 정관 의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및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27일 개최가 확정된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오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월까지 3개월간 열릴 예정이다. 여수엑스포는 80여 개국이 참가하고, 8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4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10조원의 생산유발, 8만9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체희증기자 chae@kwangju.co.kr〉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발기인인 창립총회를 갖고 엑스포 개최

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조직위 창립총회에는 한승우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동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김재철 전 유치위원장, 지역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장승우 전 해양 수산부 장관이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정동구 현대·기아자동

차그룹 회장이 명예위원장으로 추대

됐다.

한승우 국무총리는 격려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193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했다”며 “전시 관을 비롯한 박람회장 조성은 물론 여수로 이어지는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시설도 차질없이 확충할 것이



농림수산부 장관과 화상전화로 농업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있는 황주홍 강진군수.

황 강진군수-정 농수산 ‘핫라인’ 협의

“농민 목소리 경청” “현장 농정 펴겠다”

“장관님, 농민들의 고통섞인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여분간 황주홍 강진군수의 집무실에서는 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과 화상전화를 통한 ‘핫라인’이 가동됐다. 이날 핫라인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비중이 높은 130여 시·군의 시장·군수와의 화상전화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화상전화를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민족 현장 위주의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황 군수는 “앞으로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겠다”며 현장을 중시하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을 반겼다.

정 장관이 130여 시·군 단체장 중 황 군수를 찾은 화상전화 대화자로 선택한 것은 농업정책으로 떠어진 인연 때문이다.

정 장관이 한국농업 CEO연합회장을 맡던 지난 2006년 11월 수원에서 주간일간 열린 농업 CEO 교육에 황 군수가 참여했고, 이들은 교육 기간내내 함께 생활하며 한국 농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많은 교감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0시 선거운동 시작 … 열전 13일 돌입

광주 4.75대 1 · 전남 4.58대 1

후보 알리기 등 본격 득표활동

26일 4·9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민주당·한나라당 후보 등 각 후보들은 27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지역 출마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새벽부터 시장과 출근길 인파가 많은 교차로 등에서 일제히 후보와 기호 알리기 등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득표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합동연설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보들은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도보나 유세차량을 타고 유권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 다니며 열띤 득표작전을 펼쳤다. 후

4·9 총선 출마자 얼굴·명단 7·8·9면

선거운동 방법

허용

- ◎ 명함돌리기(후보자, 배우자, 지인 1인)
- ◎ 전화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
- ◎ e 메일 발송
- ◎ 공개장소 지지 투표
- ◎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

- ◎ 친조금품·음식을 제공 등 기부행위
- ◎ 항우회·총전회·동창회·신악회·계모임
- ◎ 신고설비 이외 활성장치 등의 사용
- ◎ 범(오후 10시~오전 7시) 거리유세
- ◎ 호별방문, 당원 모집 행위, 서신, 전보

이다.

광주에서는 서구 갑과 북구 갑이 6 대 1, 광산 갑과 남구가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지역구는 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 34 명, 여자 4명을 기록했으며 최고령자는 광주 광산 갑의 무소속 송병태 후보로 70세였으며 최연소자는 나주 화순 선거구의 전종덕 후보로 36세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최종 접수가 되지 않은 오후 8시30분 현재 245개 지역구에 1천929명이 등록, 총 4.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 선관위는 최종 접계 결과는 지난 17 대 8 총선 전국 경쟁률인 4.8대 1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무안·신안, 광양 등 3개 선거구가 각각 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남북대화 적극적으로 과거처럼 하진 않겠다”

이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대북 협상과 관련,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남·북간 문제는 매우 토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데 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회담 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 나도 매우 적극적이나 과거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어찌면 새정부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기본 합의서에는 한반도의 혁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미 비핵화 정신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다며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북핵 폐기를 위해 6자회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런 협약이 해결되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 지원하기 위해 북핵문제 진전상황을 봄과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날 통일정책에 여러 공과가 있었지만 진통 끝에 다시 출발하는 통일부로서 먼저 잘못한 것을 돌아보려 한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하는 등 인사말 대부분을 과거 정부 대북정책 반성에 할애했다.

광주 가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해
힘있는 한나라당인 강경수 후원회에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광주 광산구(을)
비아동, 흥덕, 2동, 신기동, 하남동, 임곡동
국회의원 후보자

• 경력
- 국립대통령 경주기념 근무
- 국립대통령 노동조합 위원회
- 국립대통령 새마을, 노동연합 자문장
- 국립대통령 일대봉봉 분부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대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부사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부사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부사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부사장

• 학력
- 부산 무학 초등학교 졸업
- 광주 동정초등학교 졸업
- 광주 산본고등학교 졸업
- 충남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립대통령 경주기념 근무
- 국립대통령 노동조합 위원회
- 국립대통령 새마을, 노동연합 자문장
- 국립대통령 일대봉봉 분부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대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부사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부사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부사장
- 국립대통령 특별기획 부사장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89-1 (4층) TEL. 062)603-0555